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創意 奉仕 誠實

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 井 植 / 인쇄인 金 在 克 /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 ISSN 1227-7053 / 등록일:1988년2월19일 / TEL. 3673-2851~4 568-6651~2 / FAX. 568-6653

〔月刊〕 第125號 THE FISHING PORT NEWS 1998年 5月 25日(月曜日) 〔1〕

항간거리 제한등 불합리한 조사항목 삭제
지정기준 다양화로 다기능 어항개발 추진

해양수산부 어항지정기준 개정

어항지정시 항간거리 제한 규정을 비롯하여 불합리한 조사항목을 삭제하고 이용어선수, 톤수, 이용실태 등 어항기능 유지에 필요한 수산업적 요소만 규정하는 등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항·포구의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해상교통, 관광, 물류유통, 생활거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준을 다양화함으로써 다기능 어항개발을 추진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어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어항법 시행규칙과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어항지정기준을 통합, 어항법시행규칙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계획이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어항법시행규칙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어항법시행규칙 주요 개정안

제2조(어항의 지정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어항
   지정하고자 하는 항과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수가 60척 이상이고 그 합계 총톤수가 200톤 이상으로서 외래어선이 상당수 이용하고 있는 항·포구
2. 제2종어항
   지정하고자 하는 항과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수가 20척 이상이고 그 합계 총톤수가 50톤 이상인 항·포구
3. 제3종어항
   지정하고자 하는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수 및 기상 악화시 대피하는 외래어선수가 각각 20척 이상인 항·포구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 20척 이상의 어선이 이용하고 있는 항·포구 중에서 지역의 균형개발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항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지정하고자 하는 어항이 자연적, 사회·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 또는 해상교통, 관광 및 유통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어항중심의 생활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항·포구
2. 국가의 주요사업 시행으로 인한 대체어항의 개발이 필요하거나 수산자원의 연구 또는 보호 관리를 위하여 어항개발이 필요한 항·포구
3. 비관리청이 자체적으로 어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어항구역 확장없이 어항구역 밖에도 어항시설 가능

어항협회 업무영역 확대 등 어항법시행령 개정 추진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어항법 개정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어항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어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반드시 어항시설 구역을 구분토록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본시설의 종류 배치계획 등을 전체 시설의 종류 배치계획으로 조정하는 등 어항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항구역의 불필요한 확장에 따른 어업활동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항구역의 확장없이 어항구역 밖에도 어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범위를 정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과 구조물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단순 보수보강 공사 등은 신고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비관리청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기능시설용 부지의 범위를 어선건조수리장, 수산물시장, 수산물가공공장용 부지 등으로 정하고 민간자본유치와 어항이용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어항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없이 무단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절차를 정하고, 어항시설의 사용료 등 수입금을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어촌과 어항의 연계개발을 위해 한국어항협회의 업무중 현행의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를 '어항·어촌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로 개정, 어촌지역을 협회의 업무영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어촌 16곳 종합개발사업 본격화
총 141억투입 가공시설등 건설

전국 16개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촌 소득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전남 무안군 홀통면을 비롯한 전국 16개 어촌지역을 종합개발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어촌환경시설, 유통가공시설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물 건설에 내년까지 총 1백4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들 16개 권역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설계에 착수했으며 이달말까지 권역별 기본개발계획을 확정, 하반기부터 해당 지자체별로 공사집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개발대상 16개 권역은 전남의 경우 무안 홀통, 여천 돌산, 진도 금갑·죽림, 해남 북평, 장흥 득량남 등 5개권역 6개 읍·면이며, 경남은 통영 사량·용남, 남해 설천, 고성 당항 등 4개 권역 7개 읍·면이 개발대상에 선정됐다.

또 경북에서는 울진 오산, 영덕 강구 등 2개권역, 강원은 양양 강현, 충남은 보령 외연, 전북은 군산 옥도, 제주는 북군 애월, 울산은 울주 서생1 등 각각 1개권역이 개발대상에 올랐다.

어항어촌 발전 위해 어항협회 기능역할 강화돼야

살릴 자와 죽일 자를 가르는 살생부란 말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공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통 널리 회자되지만 최근엔 지난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TV 대화'에서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기업을 선정해 강제 퇴출토록 하겠다는 발언 이후 이번엔 대상기업 살생부 이야기가 재계에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모양이다.

살생부 그 자체로는 다소 끔찍하면서도 살벌한 면이 없지 않으나 사실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매우 간단 명료하다. 옥석을 가려내자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요즘같은 치열한 국제화 경쟁시대에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단체가 있다면 이는 마땅히 경영혁신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살생부란 낱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옥석을 가려내자는 것이라면 죽이고 살리고, 다시 말해 없애고 합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이유로는 옥석을 가려내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려내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조정을 해주자는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과감히 이를 시정하자는 것이 아마도 혁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뜻과 다름 아니다.

전환기 한국어업의 현실을 볼 때, 황폐화 되어가는 어촌 정주권을 도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항을 핵으로 하는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어항어촌 관련단체는 각 도도부현에 있는 40개의 어항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어항협회를 비롯하여 전일본어항건설협회, 어항어촌건설기술연구소, 전국어항방재협회, 수산토목건설기술센타, 어항신기술개발연구회, 피셔리너협회 등 12개의 단체가 있다. 특히 수산청이 중심이 된 어항기술개발에는 전문가 등의 제한요소가 있으므로 산·관·학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항어촌의 비전제시와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현하고 있다.

한국의 어항인들이 바라보며 생각할 땐 꿈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부러운 것은 어항협회와 관련단체가 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정부와 어항협회 모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훌륭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정부는 어항협회가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고 있으며, 어항협회는 이에 걸맞게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어항어촌 발전이란 한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힘차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항어촌 관련단체로는 한국어항협회가 유일무이하다. 아직 연륜이 깊지 못한 관계로 하부조직조차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간 어항어촌 발전에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켜온 것만은 자타가 모두 공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항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정책과 끊임없는 교류를 갖되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창의적이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배려도 해준다면 복지어항어촌의 실현 기간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어항어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항어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어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진 수산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우리의 어항관련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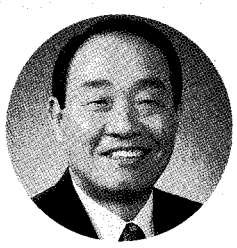
또한 어항기능을 다양화하여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을 건설하여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감히 한국어항협회가 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세발자전거 모델을 예로들면 뒤쪽의 두 바퀴중 한축은 정부, 다른 한축은 어항협회가 그 역할을 맡아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만이 선진 어항어촌 건설을 위한 계획이 빛을 발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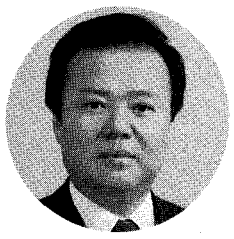
동정

'사랑의 먹거리 나누기' TV 프로에 출연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6일 MBC-TV '사랑의 먹거리 나누기'에 프로에 출연, 정부비축 마른미역을 전달, 15일에는 A·R 칸 카이저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해양수산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 칸 카이저 대사는 이날 한국측에서 방글라데시 선원의 고용을 촉진하고 새우류 등 자국생산 수산물의 수입을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청.



孫井植 한국어항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5월2일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98년도 춘계학술대회 '역대정부의 정책평가와 신정부의 정책과제'에 참석, 13일에는 서강대학교에서 아태평화재단·UN교류지원재단이 공동 주최한 요한 갈퉁 박사 초청강연회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고찰:몇가지 제안'에 참석, 16일에는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한·일 양국 공무원의 민간기업 재취업에 대한 고찰'에 참석, 20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바다 최고경영자 조찬모임에 참석, 21일에는 중앙일보·서울대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에서 공동주최한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과 과제'세미나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4월26일부터 13일간 한·러 양국간 수산업 협력증진과 북유럽 국가에서 수출입 시장 개최방안을 협의하고 귀국, 5월18일에는 수협 강당에서 무사고와 풍어기원을 위한 '98풍어제'에 참석, 20일에는 제2차 한·일 민간어업 의견교환회 참석차 출국.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5월4일 경기도 안성 표준협회 연수원에서 4일부터 28일까지 선박안전기술원 출범을 대비한 검사원직무교육 1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특강.

▲최상옥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5월7일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제18차이사회에 참석, 9일에는 한국복지재단 광주지부후원자와 결연대상자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 15일에는 기독교 광주방송 시청자위원회에 참석, 16일에는 제14회청소년예방선도 서화백일장에 참석, 17일에는 제1회국제친선 초청태권도대회에 참석, 23일에는 경남과학교육원에서 열린 제27회전국소년체육대회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5월1일 송원대학 현판식을 거행, 16일에는 제14회청소년예방선도 서화백일장에 참석, 19일에는 광주지역 선도보호위원 운영위원협의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5월1일 한·일 친선협회 중앙위원회에 참석, 4일에는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영국재무장관 초청만찬에 참석, 8일에는 경영자총연합회 세미나에 참석, 14일에는 창사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5월17일 영남대학교 체육대회에 참석.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19일 무안 우회도로 공사현장에 출장.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1일 창사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7일에는 광주전남 기관장 정기조찬회에 참석, 이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에 참석, 14일에는 대한건설협회 PQ제도 개선위원회의에 참석, 18일에는 5.18민주화운동 18주년 기념식에 참석, 21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에 참석, 이어 건설교통부에서 개최된 건설교통부장관과 건설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

▲정윤삼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9일 전남대학교 사회교육원 진도캠퍼스 개원식에 참석.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 선도보호위원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 16일에는 제주컨벤션센타 이사회에 참석, 27일에는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임제호 삼오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5월27일 제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기업지원 유관기관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

▲임광수 임광토건주식회사 회장은 5월17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12대 동창회장으로 피선.

■ 한국어항협회는 5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어항공사시공관리기법 연구용역사업과 관련,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변 경

▲삼부토건주식회사는 최근 전화번호를 3706-2114로 변경했다.

회원가입

▲김승련씨(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소장)

개 설

▲옹진수산업협동조합은 5월12일 경기도 시흥시 월곶지구에 상호금융점포를 개설했다. 전화번호: (032) 698-5656-8.

회비납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동화건설주식회사(사장 김재우)

▲주식회사대아건설(사장 이정균)

▲세기건설주식회사(회장 양성후)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봉훈)

▲옹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홍성웅)

▲장항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병규)

▲제3·4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인규)

▲주식회사동아기술공사(사장 김영삼)

▲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사장 정공일)

▲주식회사우창해사(사장 이봉태)

▲인성실업주식회사(사장 박인성)

■특별회비

▲송예용씨(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5만원)

■개인

▲김승련씨(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소장)

▲서기덕씨(전 대건중기)

▲조사연씨(인천건설사무소 아산항건설과)

▲박의환씨(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차장)

▲김현주씨(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

▲고덕봉씨(한국수산회 부회장)

▲구본수씨(부산항만민자사업건설용역단 과장)

▲이존양씨(해양수산부 선박관리과)

▲최병원씨(전 수산청)

▲김영수씨(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이사)

▲전병하씨(전 수산청)

▲김홍석씨(주식회사유신코퍼레이션 부장)

▲홍효선씨(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이전호씨(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과장)

▲김영환씨(전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전무이사)

▲엄세용씨(전 중앙식품주식회사 차장)

▲공종덕씨(현대지리정보주식회사 사장)

▲구자천씨(정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금종석씨(전 신신상호신용금고 고문)

▲유영해씨(한국어항협회 자문위원)

▲김기수씨(봉산탈춤 인간문화재)

▲김기평씨(전 보험감독원 부장)

▲김상목씨(목천화원 사장)

▲김성규씨

▲김세열씨(한국감정원 서부지점장)

▲김순도씨(노틀담항만청 한국사무소 대표)

▲김시문씨(전 수산청 차장)

▲김용호씨(주식회사세종전광 회장)

▲김윤수씨(주식회사동특 사장)

▲김인배씨(H.S.T공업주식회사 회장)

▲김일제씨(주식회사범신기획 회장)

▲김정환씨(전 주식회사청열실업 사장)

▲김중근씨(김중근세무회계사무소 평가사)

▲김홍배씨(전 원예정보시스템 상근고문)

▲민경효씨(펜타컴퓨터코리아주식회사 부사장)

▲박규을씨(동구레주식회사 명예회장)

▲박기철씨(전 한국어선협회 전무이사)

▲박당우씨(전 대일개발주식회사 부회장)

▲박대현씨(한국국방연구원 안보연구위원)

▲박임호씨(주식회사연우기획 사장)

▲박호종씨(창림산업주식회사 사장)

▲백운영씨(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서승욱씨(한국수산회 상무)

▲성기헌씨(전 한국어업기술훈련소장)

▲송순학씨(엘콤통신 회장)

▲송형준씨(금호건설주식회사 부사장)

▲신언한씨(전 협신상호신용금고 감사)

▲안의현씨(서울마주협회 사무국장)

▲안중철씨(전 수협중앙회 부회장)

▲안종관씨(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상무이사)

▲안창수씨(전 법제처 국장)

▲안형선씨(전 수협중앙회 이사)

▲윤대현씨(D.M상역 사장)

▲윤병무씨(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사장)

▲윤석환씨(주식회사파라다이스여행사 사장)

▲윤주영씨(전 동도기업 대표)

▲이광조씨(전 극동전선공업주주식회사 이사)

▲이기인씨(헌우회 사무총장)

▲이기홍씨(삼성전자주식회사 상무)

▲이동섭씨(사단법인청소년지도육성회 사무총장)

▲이상우씨(일은증권 강남지점 고문)

▲이상철씨(전 대성특수제지주식회사 사장)

▲이석규씨(주식회사삼정정기 전무이사)

▲이수연씨(주식회사LG텔레콤 상무)

▲이왕렬씨(국제전략경영연구원장)

▲이인재씨(주식회사범신기획 회장)

▲이응규씨(한국진성경영학술연구원장)

▲이재현씨(주식회사평원엔지니어링 사장)

▲이정식씨(전 한국어항협회 전무이사)

▲이종호씨(주식회사범신기획 사장)

▲이종휘씨(전 한국냉장주식회사 상임고문)

▲이치훈씨(성진수산 사장)

▲이희수씨(전 수산청장)

▲임승언씨(김포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임승혁씨(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사)

▲임중재씨(인천교역상사 사장)

▲장봉환씨(전 주식회사티아산업 부회장)

▲전기원씨(임덕건설산업주식회사 회장)

▲정척희씨(방산정밀화학주식회사 회장)

▲정태승씨(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부구청장)

▲주홍장씨(신라교역주식회사 상임고문)

▲최치민씨(한성화학 부사장)

▲최흥윤씨(전 주식회사달마 전무이사)

▲하성환씨(전 한국어선협회장)

▲황권주씨(전 주식회사이우회장)

▲황대흠씨(우진수산주식회사 사장)

▲황열성씨(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선경총괄대표)

▲황재수씨(한국수산신보사 사장)

감리제도 2005년 이후 폐지

국토개발연구원 발전방안 제시

오는 2000년까지 62개에 이르는 법령과 규정으로 분산돼 있는 건설감리제도가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일원화된다.

또 오는 2005년 이후부터는 건설감리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공사는 건설사업관리방식(CM)으로 수행된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최근 건설감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건설교통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감리제도 일원화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이날 오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제시된 방안은 그동안 연구용역수행과정에서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참여한 연구협의회를 통해 어느정도 의견 조율이 선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정부정책으로의 수용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감리제도 발전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건설감리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용어, 감리대상공사의 종류, 감리용역 발주방법, 감리업무의 내용 및 수행절차,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 감리자의 자격기준, 감리대가 산정의 일반기준 등을 건설기술관리법에 통일시켜 규정하는 등 감리제도 운용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시설물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 건교부이외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공사들도 감리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감리의 종류를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로 이원화하고 시공감리는 복합공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감리와 건축, 토목, 설비, 전력시설물, 정보통신, 소방등 공종별로 나눈 전문감리로 구분하는 한편 감리방법에 따라서 책임감리, 자문감리, 검측감리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발전방안은 또 오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제구축에 나서 감리용역발주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시범적으로 일부 공사를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건설감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공사를 건설사업관리방식으로 수행하는 등 건설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방식으로 수행하는 등 건설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조달청 계약요청공사 20억에서 30억이상으로

재경부 수요기관 자율성 높이고 행정절차 간소화 위해

다음달부터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가 현행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축소 조정된다.

또 조달청에 의뢰해 최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이후에 이뤄지는 변경계약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각 수요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처럼 개정, 법제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6월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대상을 현행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모든 계약을 원칙적으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초계약을 제외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스컬레이션) 등 모든 변경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법률에서는 또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때 지금까지는 이를 조달청 수입으로 입금했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조달청의 잘못으로 조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수수료 부과를 면제해 수요기관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달수수료율은 조달물자 공급가격의 0.1~0.4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중 면제대상은 비축물자의 판매대금 및 저장품 공급가격에 한정돼 있다.

정부는 이밖에 수요물품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각 수요기관이 물품공급을 전산망을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1998년도 제1·3종 어항공사 계약 추진현황

(5월18일현재, 단위 : 백만원)

항 명	도급액(관급제외)	계약일	착공일	물 량	시 공 회 사
부산지방청					
대변항	4,069	4.24	5. 1	동방파제 축조 61m	정남개발(주)
인천지방청					
울도항	1,313	4. 3	4. 9	호안 139m, 방파제 하부 26m, 호안도로 67m, 물양장 43m	송우건설(주)
여수지방청					
시산항	2,882	4.29	4.30	남방파제 상부 45m, 하부 35m, 파제제 상부 115m, 물양장 하부 104m	금광기업(주)
풍남항	2,308	4.22	4.24	서방파제 상부 133m, 하부 112m	건화건설(주)
초도항	2,910	4.10	4.15	북방파제 상치 82m, 상부 63m, 하부 43m,	영진건설(주)
낭도항	2,215	4. 9	4.11	방파제 상치 60m, 하부 49m	(주)대아건설
마산지방청					
지세포항	2,818	4.30	5. 1	방파제 상부 66m, 물양장 하부 100m	성보건설산업(주)
구조라항	1,016	4.21	4.24	방파제 하부 25m, 물양장 하부 60m	우림종합건설(주)
외포항	1,245	4.15	4.17	동방파제 보강1식, 물양장 상부 78m	(주)한성
동해지방청					
안목항	4,076	4.17	4.20	방파제 축조 49m	신우건설(주)
수산항	3,064	4.17	4.20	북방파제 축조 30m, 물양장 108m	(주)삼양사
군산지방청					
말도항	1,155		5.13	등대 2기, 물양장 하부 107m, 선양장 하부 30m	(유)동성
어청도항	4,623	4.16	4.16	동방파제 상부 56m, 적출장 1식, 등대 1기	조흥공영(주)
목포지방청					
소흑산도항	8,262	4.14	4.17	방파제 상부 44m, 상두부 1식	삼부토건(주)
계마항	1,129	5. 4	5. 7	호안 상부 328m, 선양장 30m, 등대 2기, 투기장 1식	보성건설(주)
보옥항	2,389	4.29	5. 1	남방파제 축조 44m	남광건설(주)
득암항	2,296	4. 9	4.11	동방파제 축조 48m	금광기업(주)
여서항	4,304	4. 3	4. 6	동방파제 상부 91m, 상두부 1식	금광기업(주)
수풀항	3,061	4.29	4.29	동방파제 하부 85m, 서방파제 상부 108m, 두부 1식	대지종합건설(주)
어란진항	614	4.27	4.28	물양장 하부 86m, 호안 하부 99m	금광기업(주)
포항지방청					
감포항	943	4.23	4.27	도제 하부 67m, 북방파제 및 물양장 보수 1식	갑을건설(주)
대진항	1,865	4.15	4.20	북방파제 축조 33m, 남방파제 보강1식, 방파호안 보강1식	(주)삼건사
축산항	2,872	4.28	5. 1	북방파제 축조 25m	(주)삼건사
현포항	4,183	3.31	4. 3	동방파제 축조 27m	동화건설(주)
구산항	1,566	4.20	4.24	북방파제 축조 39m	학산건설(주)
오산항	1,845	4.11	4.15	북방파제 축조 37m, 보강 1식	태림종합건설(주)
죽변항	757	4.28	5. 1	익제 축조 20m	무학산업개발(주)
제주지방청					
김녕항	2,686		5.18	동방파제 축조 107m	정한종합건설(주)
신양항	1,364	3.11	3.16	동방파제 보강 133m	(주)삼오종합건설
대산지방청					
오천항	1,067	3.23	3.25	물양장 축조 17m, 상부 48m, 하부 7.5m	활림건설(주)
홍원항	1,705		5. 7	물양장 상부 30m, 하부 129m, 돌제 하부 30m, 상부 1식	동방건설(주)
모항항	2,703	3.28	4. 1	방파제 축조 44.5m	성우건설(주)

낙찰심사기간 획기적 단축

앞으로 조달청이 집행하는 적격심사대상 시설공사의 낙찰업체가 입찰당일에 확정된다.

이에따라 종전의 적격심사대상 공사입찰에서 낙찰권에 들어간 업체들이 모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내야하는 번거로움을 들게 되었으며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 된다.

조달청은 최근 공사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공사의 입찰집행후 적격심사를 통한 계약자 선정에 약 1개월정도 소요되던 것을 입찰집행 당일에 최종 낙찰사를 확정짓기로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입찰집행후 낙찰예상권에 들어간 업체들이 각각 적성 제출해야 하는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낙찰업체만 내게됨에 따라 업체별로 약 7백~ 8백만원이 소요되는 비용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게 됐다.

1998년은 UN이 정한 세계 해양의 해입니다

5월 30일은 제3회 바다의날

국민바다헌장

바다와 바다에 살고있는 모든 생물체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이다.

정부는 모든 바다자원을 지혜롭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어업자원을 풍부히 하고 건강한 바다를 가꾸어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바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켜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삶의 바다를 조성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실천강령을 채택한다.

- 우리는 정부가 올바른 해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 각국은 이웃나라와 협력하여 공동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 해양자원과 지식이 풍부한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를 도와야 한다.
- 해양에 관한 자료와 정보는 상호 교환되어야 한다.
- 각국은 국제기구를 통해 범지구적인 사업을 개발토록 협력하여야 한다.

나는 바다를 이용할 때나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사용할 때마다, 바다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에서 국민바다헌장을 상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SOC투자 일관성 유지해야

기획예산위 SOC 정책토론회서 제기

기획예산위원회는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택분야에 대한 예산수요자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내년도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편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예산위가 건교부와 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 차관을 비롯 건설관련 단체, 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SOC사업의 투자조정 및 효율성 제고방안'과 '주택시장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SOC투자의 효과를 결정짓는 가장 주요한 변수는 적기투자의 여부라고 강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 신뢰도를 높이고 5년 단위의 사업시행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5년동안 SOC투자사업비가 1백조원 정도로 추정되나 재원은 22~31조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 지역 및 부분별로 경제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중점사업을 선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하며 물류와 도로·철도 등 연계 SOC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예산배정계정 구분에 따른 재원배분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SOC관련 재반회계들을 통합하고 지역개발협약제도의 도입,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 등 지역개발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실시 및 지역공동도급제의 완화 폐지와 C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발주체계를 개선하고 △총액예산제도의 도입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개선 △계속비제도의 활성화 △선보상 후시공 원칙의 확립 등을 통해 비용절감과 재정투자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先進東亜技術報國

주요사업영역

국토개발부문 — 도시계획, 조경, 교통, 에너지사용계획, 측량

건설사업부문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건축구조, 항만 및 해안,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발송배진

종합책임감리사업부문 — 토목책임감리, 건축책임감리

환 경 부 문 — 엔지니어링,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株)東亜技術公社

대표이사 김 영 삼

DONG-A ENGINEERING Co, Ltd.

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291-3 전화(0612)374-1320

건·강·하·게·삽·시·다

하루에 몇 잔이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저녁식사 때 상추 등 녹색채소를 먹으면 좋다

소설가나 편집자, 그리고 의사나 택시 운전기사 등 신경을 극도로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어서 아무래도 커피, 홍차를 많이 마시게 된다. 카페인이 뇌세포를 자극해서 집중력이나 사고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직업상 지나칠 수 없는 음료라고는 해도, 카페인을 대량 먹게 되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에 걸리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카페인은 담배 니코틴과 마찬가지로 위산 분비를 활발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식후에 커피나 홍차를 마시면 소화를 돕게 될 수 있는데 공복시에 마시면 분비된 위산은 소화될 것이 없으므로 위벽을 헐게 해버린다. 게다가 나머지 위산은 십이지장까지 흘러간다. 십이지장 속은 알카리성인데 보통 때 흘러들어 가는 위산은 그다지 많은 양이 아니므로 중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양이 많으면 중화되지 못한 위산이 십이지장 속에 남아 장벽을 헐게 해 궤양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직업상 카페인 섭취가 많은 사람이 우선 주의해야 하는 것은 커피, 홍차를 마실 때는 가능한 한 블랙은 피하고 우유를 넣어서 마시는 것이다. 우유는 알카리성이므로 위산을 중화시켜 줌과 동시에 일로 신경을 자극하는 것에서 생기는 비타민 B군이나 미네랄의 소모분을 보충시켜 주는 효과도 있다. 어쨌든 이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루에도 몇 잔씩 커피를 마셔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우유량을 많게 하면 카페오레나 밀크티가 된다. 다방에서 만날 때는 커피나 홍차 대신 우유를 주문해도 좋겠다. 또 커피나 홍차를 많이 마신 날 저녁식사 때 상추 같은 녹색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다. 이 야채에 의해 비타민 C가 보충되고 혈액의 알카리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위산에 의한 궤양 형성 예방에 효과가 있다. 더군다나 카페인은 체내에서 철분과 붙어서 몸 밖으로 배출돼 녹색 야채에 의해서 철분을 보충시킬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라 할 수 있겠다. 또 홍차는 커피에 비해 세 배나 카페인이 더 많으므로 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홍차 쪽이 더 안 좋다. 영국 사람은 홍차를 많이 마시는데 그건 아메리칸 커피같이 정말 맛이 약하다. 그러므로 홍차를 좋아해서 하루에 몇 잔이나 마시는 사람은 맛이나 향기나 보존된 만큼만 약하게 해서 마시도록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있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당분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커피나 홍차에 설탕을 넣지 않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멀리하게 되는 설탕도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19〕

第2章 浚渫工

(16) 해저관 부상 인입

침설하고 있는 해저관의 부상은 해저관·관구의 한쪽에 부상용 맹판을 부착하여 콤프레서(compressor)로 공기를 보내고 관내의 물을 빼내어 해저관을 부상시킨다. 한 방향에서 공기를 보내면, 관내의 물은 다른 쪽에 열려 있는 관구로부터 방출되어 부력에 의하여 점차 부상한다. 방출구에는 플로터 등으로 받쳐서 부상시켜 둔다.

침설장소가 사질토 또는 경질토인 경우는 비교적 문제없이 공기를 보내는 쪽에서 차례로 부상하는데, 점토질 또는 연약사의 경우는 해저관이 흙속에 묻혀 점착력에 의하여 원활하게 부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해저관은 부상하는 부분과 부상하지 않는 부분이 교대로 발생하거나 부상이 늦은 부분이 급격하게 부상하거나 하여 해상작업자나 작업중의 선박기기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잠수부가 해저관의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묻혀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크레인선이나 양묘선 등으로 부상을 강제하여, 한쪽에서 차례로 부상시키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부상한 침설관을 중간에서 떼어내는 작업은 접속과 같이 플로터로 받쳐서 단절한다. 부상작업은 조류가 없거나 기상과 해상이 좋은 때를 노리고 경계선을 미리 준비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추진한다.

(17) 설비공(해체·철거)

준설작업의 완료후, 플로터, 해저관, 해상 받침대(배관을 포함한다) 등의 제설비를 해체·철거한다.

(18) 회항

의장완공후 회황한다.

(19) 기자재운반공(반출)

(3) 기자재운반공에서 반입한 부속품이나 가설재를 반출한다.

2.3 그래브준설

2.3.1 개 설

그래브준설은 그래브식 준설선을 사용하는 준설으로 방파제나 안벽 등의 기초굴착, 힝로·박지의 준설, 매립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그래브식 준설선에는 자항그래브식 준설선과 배항그래브식 준설선의 2종류가 있다.

작업성을 고려하여 건조된 비항·상자형 타입과, 이동성(항해)을 고려하여 건조된 자항·선형 타입으로 구분된다(소수이긴 하지만 비항·상자형 타입으로 보조엔진과 스크류를 갖춘 것, 자항·선형 타입으로 대형크레인을 탑재한 것도 있다).

비항·상자형 타입의 작업선에는 그래브식 준설선, 펌프식 준설선, 디퍼(백호우)준설선, 항타선 샌드콤팩션(SCP)선, 기중기선, 크레인부착태선, 콘크리트믹서선, 플로팅 독(FD선) 등이 있다.

자항·선형 타입의 작업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드래그석션선, 그래브부착자항운반선(거트선) 등 이 있다.

대체로 비항그래브식 준설선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항그래브식 준설선(이하 「그래브식 준설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래브식 준설선의 호칭은 표준그래브 용량(물기를 뺀 상태)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래브 용량은 0.6㎥~50㎥ 등 크고작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래브식 준설선은 해저의 토사·자갈 등을 그래브로 집어 올려서 반출하는 것으로 토질조건, 준설토의 두께, 주변해역의 상황, 기상·해상조건 등에 따라 대상작업선이 결정된다.

그래브식 준설선은 대체로 상자형을 이루고 있고, 선수·크레인부의 선단에서 와이어를 개재한 그래브를 수중으로 낙하시켜서 토사 등을 집어올려 토운선에 싣는다.

그래브버킷의 종류는 그림 2.3.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이 중에서 대상토질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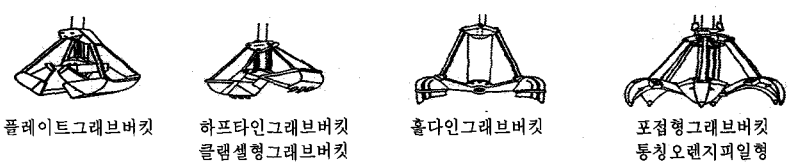


그림 2.3.1 그래브 버킷의 종류

IMF체제 극복의 목표와 과제 〈2〉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건전성 감독은 강화

♣ 생활정보

(2) 금융시장과 금융·기업구조개편의 정책방향

○ 최근의 경제위기는 기업과 금융의 부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 단기적으로는 금리의 하향 안정, 금융시장에서의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한 금융시스템의 복원을 통하여 전반적 안정 도모

○ 금융기관과 기업의 재무구조와 경영기법 등이 국제적 수준에 맞게 운용되도록 개선

(3) 정책과제 추신상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애로

○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기업의 부도가 확산되고 건실한 기업까지 도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부도율이 급상승: ('97평균) 0.31% → ('98.1말) 0.53%

- 이에 따라 실업률도 크게 상승: ('97평균) 2.6% → ('98.1) 4.5%

-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투자의 감소는 물론 산업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염려가 있음

○ 기업의 자금난 심화는 기업의 부실에도 원인이 있으나

- 건실한 기업까지 도산하는 것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단기자금을 장기자금으로 운영하는 등 자금공급 순환경로가 원활하지 못하게 이에따라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임

- 고금리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외화유입확대에 의한 환율안정이 필요하나 아직 불안요인 상존

○ 이와함께 기업자금난 해소를 저해하는 요인 상존

- 금융기관은 BIS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출취급에 소극적

- 대기업의 자금 확보경쟁과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결제 지연

- 금융기관간, 금융기관과 예금자간의 신뢰기반 약화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Illiquid) 흑자기업의 도산

○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재정부담 증가

-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대되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폭 가능성

- 기업의 구조조정시 증자와 기업·부동산 등의 매각이 필요하나 주식시장 여건상 증자에 애로, 기업부동산 매입수요 제약

- 금융시장안정·예금자보호·기업자금공급확대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Moral Hazard 문제 발생 가능성

(4) 향후 대응방향

○ 신규 외화자금 유입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으로 금리의 하향안정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IMF와 협의하여 금리인하 추진

○ 기업자금 공급 확대

- 은행의 증자·후순위채 추가매입 등으로 BIS 비율제고

- 은행·비은행금융기관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자금흐름의 선순환 도모

- 은행의 자금지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한국은행자금지원, 국고여유자금운용시 우대)

- IBRD 자금을 활용하여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추진

○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건전성 감독은 강화

- 위험관리체제 구축, 조기시정장치개발 등

○ 대출심사 기능, 거래기업의 경영지도 등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기능을 강화하여 기업구조개혁 가속화 추진

○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추진

- 부실 금융기관의 정확한 부실현황 파악 및 일관성 있고 투명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정리 추진

- 우량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하여 증자 또는 자금조달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 기업·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수요개발 및 제도개선

- 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정비

· 금융기관·기업의 외부감사·외국인 임원 선임, 경영의 투명성 및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방안 추진

· Moral Hazard를 유발시키는 제도·정책의 개선

IMF체제 극복을 위한 중점추진과제(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과제)

포인트 5 : 고금리 등으로 산업기반이 와해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는가?

○ IMF프로그램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저성장기조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

- 그러나 고금리와 유동성 부족(Illiquidity)으로 인해 건실한 기업마저 도산할 우려가 있는 등 산업생산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있으며

- 소비와 투자의 극심한 위축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감소시켜 향후 경제회복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가 유지되어 성장잠재력을 보전하여야 새로운 경제체제가 작동하는 바탕이 마련됨

- 그러나 민간부문의 투자여력은 위축되고 있고 재정 금융정책에 대한 대응노력도 IMF와의 협의에 의해 제한됨

○금융 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으로 건실한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면서

- 급격한 내수부문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시경제 정책의 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 벤처 중소기업지원, 건설분야 애로해소 방안 등의 적극 추진 및 재정 금융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

♣ 생활정보